

茂亭 鄭萬朝의 『榕燈詩話』 연구

안 대 회 *

1. 머리말
2. 『榕燈詩話』의 저술과 신문 연재
3. 18·19세기 한시사의 구도 제시
4. 고종 시대 시단의 증언
5. 맺음말

1. 머리말

이 논문은 『榕燈詩話』를 발굴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비평사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이 시화는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저명한 문인인 茂亭 鄭萬朝(1858~1936)가 편찬한 비평서이다. 이 시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故 李家源 선생의 『玉溜山莊詩話』에 저작의 일부가 실려 있어 일찍부터 학계에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실물이 나타나지 않아 정만조를 다룬 여러 편의 논문과 시화를 다룬 모든 논문에서는 사라진 저술로 간주하였다.¹⁾

필자 역시 조선후기 詩話史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부터 애써 찾았으나 찾지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정은진, 2013 「무정 정만조의 『朝鮮近代文章家略敍』 연구」 『한문학논집』 36, 247-284면;
정은진, 2010 「茂亭 鄭萬朝의 친일로 가는 思惟」 『대동한문학』 33, 133-190면; 박영미,
2008 「한시에 표상된 근대의 풍경: 정만조의 일본 기행 한시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
구』 42, 401-428면; 조성면, 2006 「정만조의 『朝鮮詩文變遷』과 근대 한국문학 연구: 『朝鮮
詩文變遷』이 조윤제와 김태준의 문학사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대중문학·
문화콘텐츠』, 소명출판, 201-223면.

를 못했다. 이제 고려에서부터 현대까지 전 시기를 포괄하는 『한국시화사』를 쓰고자 하여 근대시기의 시화를 모두 수집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시화가 『毎日申報(毎日新報)』에 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전체 내용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또 학계에 널리 소개하고자 하여 전체 내용의 번역을 거의 완성하였다. 출간에 앞서 그 동안 분석한 내용을 학계에 보고하고자 이 논문을 발표한다.

필자는 『옥류산장시화』에 실린 일부 내용을 접하고서 일찍부터 조선말기에 나온 가장 우수한 시화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번에 전체 내용을 읽고 분석한 결과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시화사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가장 우수한 시화의 하나로 평가할 만하다. 한국의 문학사와 비평사에서 조선말기 시단의 비평서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양적으로 부족하다. 그 시대 비평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우수한 시화로서 『용등시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비평사적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2. 『榕燈詩話』의 저술과 신문 연재

정만조는 법률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이다. 그러나 조선말기에 그는 시문에 능한 재능있는 문사로 인정받았고, 일제강점기 20여 년 동안 한 학계의 태두로 군림했다. 생애 후반기에는 침을 뱉어 마땅한 짓을 행했으나 그 행위를 소급하여 생애 전반기의 업적을 묻어둘 수는 없다. 그의 시문집에는 『紫閣山館初稿』, 『恩波濡筆』, 『茂亭存稿』, 『茂亭存稿補遺』²⁾ 등이 전해오고, 그밖에 「朝鮮詩文變遷」, 「朝鮮近代文章家略敍」, 「朝野詩選序」, 「大東詩選序」와 같은 저작에는 문학과 비평, 학문의 방면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실려 있다. 요컨대, 정만조의 저술은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의 문학과 학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용등시화』는 무엇보다 귀중한 저술이다. 정만조는 을미사변에 깊이

2) 『紫閣山館初稿』는 원고본으로 권2가 남아 있는데 전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밖의 시문집은 개인과 木浦詩社가 소장하고 있다.

연루된 죄목으로 1896년부터 1907년까지 10년 동안 진도에 유배되어 지내던 중 1904년을 전후한 시기에 『용등시화』를 저술하였다. 무정은 1882년 宦路에 들어선 이후 開化派 관료로서 활동하였다. 1895년 갑오개혁 때에는 金弘集 내각에 중용되었고, 1896년 2월 민비시해사건에 연루되어 15년의 유배형을 받고 진도에 유배를 갔다가 1907년 유배에서 풀려났다. 무정은 진도 유배지에서 주변의 지방 문인들과 교유하며 창작활동을 이어갔고, 그 성과가 시문집에 실려 있다.³⁾ 하지만 당시의 저술로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 것은 『용등시화』이다.

『용등시화』가 진도에서 쓴 저술이라는 사실은 시화의 제목에도 표현되어 있다. 당나라 시인 柳宗元이 柳州로 편적되었을 때 「柳州에서 2월에 榕나무 잎이 떨어진 것을 보고 우연히 짓다(柳州二月榕葉落盡偶題)」란 시를 지었다. 그 시에 “벼슬살이에 나그네라 심경은 처량한데, 한창 봄이 가을 같아 마음 사뭇 멍하구나. 산성에는 비가 내려 온갖 꽃이 떨어지고, 용나무 잎 뜰을 채우고 꾀꼬리는 마구 우네.(宦情羈思共悽悽, 春半如秋意轉迷. 山城遇雨百花盡, 榕葉滿庭鶯亂啼.)”라고 했는데 이 시에 나온 용나무 잎이 나중에는 유배지를 상징하는 시어로 쓰였다. 그러므로 『榕燈詩話』는 유배지 진도의 호롱불 밑에서 쓴 시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⁴⁾

序跋文이 없어서 시화의 저술과 관련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본문 일부에 시화를 저술한 시기를 알려주는 정보가 숨겨져 있다. 39則에는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가 인천 앞바다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때는 1904년으로 저자가 진도에서 러일전쟁 소식을 접하고 그 여파로 대한제국이 위기에 빠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⁵⁾ 또 97則에는 茂亭이 진도에 유배된 지 몇 개월 뒤에 和順의 嫉女 香心이 소식을 듣고 난초 그림과 시를 보내온 사실을

3) 이순육, 2012 「茂亭 鄭萬朝의 『恩波濡筆』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정만조의 동생 鄭丙朝은 그때 제주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拜家伯氏書, 述懷却呈」이란 시에서 “매천은 무심한 사람이 아니기에, 길이 멀어도 찾아올 줄 난 알고 있었네. 아우만 없다는 말 한 마디가 서글프니. 용나무 창 등불 아래 벗소리만 들리누나.(雲卿不是無心者, 道遠能來我已知. 少一翻成惆悵語, 榕窓燈火雨聲時.)”라는 시를 지었다. 매천이 1896년 진도로 정만조를 위로하러 온 것을 말한 시이다. 이 시의 결구 “榕窓燈火雨聲時”에서 榕燈 이란 말을 가져다 시화의 이름을 삼은 것으로 추정한다.

5) 정만조, 『榕燈詩話』 39則. 각주 31)에 원문이 실려 있다.

밝히고 香心과 연락이 닿은 지 몇 년 지난 뒤에 시화의 마지막 則을 썼다고 했다.⁶⁾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용등시화』는 1904년을 전후한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한다.

무정은 이 시화를 생전에는 거의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집에 실린 시에서도 언급이 전혀 없고, 자신을 포함해 누구의 서발문도 전하지 않는데 조금 특이한 사례이다. 그가 사망한 이후 1938년 『毎日申報』에 시화가 연재되면서 일반에 공개되었다. 신문기사의 저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밖에 다른 사본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까지 어떤 실물도 밝혀져 있지 않다. 『매일신보』에는 9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62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무정이 사망한 지 2년째 되는 해이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일제강점기 전 기간 동안 폐간 없이 발간된 유일한 신문이다. 1930년대 들어 총독부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국침략 이후 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1940년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강압적으로 폐간시켰다.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까지는 총독부가 ‘권력의 나팔수’로서 언론을 극심하게 통제하던 시기였는데⁷⁾ 그 기간에 신문에 연재되었다.

무정은 전통 학문을 하는 지식인 가운데 친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대표적 인물이다. 『매일신보』는 친일 지식인에게 學藝面에 기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무정은 그 지식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이는 존재였다. 그렇다고 해도 사망 이후 遺著가 일간지에 연재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그 배경을 필자는 다음 세 가지로 해석한다.

6) 위의 책, 97則 “余六歲，陪伯父庶尹公，在和順衙中，有光州七歲童妓香心來，能書壁窠字。余時押韻，作五言一二句，香心竊欲學之，留數日而去，其後不知存沒。年前配珍島數月，有人傳一函書，題封曰：‘光州友蘭上書’披見，友蘭卽香心別字，畫一幅蘭，作一絕詩以寄，詩曰：‘從遊翰墨記童時，一別居然歲月遲。忽得海鄉消息至，堂堂忠義有誰知？’詩雖不工，亦是奇事。” 이하 원문의 인용은 『매일신보』 수록면을 표시하지 않고 필자가 재정리한 칙수와 원문을 교감한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2017년에 성균관대 출판부에서 간행한 역주본의 교감본 텍스트를 따른다.

7) 수요역사연구회, 2007 『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20-30년대』, 두리미디어, 18-19면.

첫 번째는 그 동안 친일지식인의 상징적 존재로서 經學院大提學을 지낸 데다가 植民史學의 본거지인 朝鮮史學會에서 사료편찬을 주도한 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신문과 잡지를 통해 漢詩創作과 批評에서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은 점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鄭寅翼(1902~?)이란 무정의 조카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무정의 동생이자 역시 적극적 친일지식인인 鄭丙朝(1863~1945)의 아들로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 언론계의 대부노릇을 한 실력자였다. 당연히 친일 언론인이었다. 그는 1929년 『매일신보』 사회부장을 거쳐 사업부장, 동경지국장을 거쳐 1941년 이후 5년 동안 편집국장을 지내는 등 『매일신보』에 17년 동안 근속하였다. 그의 막강한 힘이 詩文大家로 추앙받은 무정의 유작을 신문에 연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세 번째는 연재되던 당시에 『매일신보』 학예면을 맡고 있던 趙容萬(1909~1995)의 뒷받침이다. 京城帝大 영문과 출신인 조용만은 조선문학과 강사로 나온 茂亭을 거의 독선생으로 모시고 조선의 한시와 唐詩를 배웠다. 조용만은 훗날 무정을 “滄江 金澤榮·梅泉 黃玹과 함께 근대의 대시인인데 유명한 『용등시화』의 저자였다.”라고 훗날 추억하였다.⁸⁾ 그가 『매일신보』에 입사하여 학예면을 맡으면서 사회부장이던 鄭寅翼과 함께 평소 존경하던 무정의 유작인 시화를 연재한 것으로 추정한다.⁹⁾ 한편, 『용등시화』의 연재가 끝난 다음 날부터 李建昌의 『寧齋詩話』가 5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시화를 소개하고자 한 시도로 해석한다.

가장 규모가 큰 신문인 『매일신보』에 연재되었으므로 당시에 널리 읽히고 알려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총독부 기관지로서 이 신문은 해방 이후 폐간되고, 『서울신문』으로 변신하였다. 그 점 때문에 해방후 격변기를 지나면서 열람의 기피대상이 되었다. 이 신문에는 이인직, 이해조, 이광수, 박종화, 염상섭 등 근현대 문학을 상징하는 주요한 소설이 연재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았으나 관

8) 조용만, 1988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27-30면. 1936년 1월 10일 『매일신보』 1면 최상단에 조용만은 「茂亭鄭先生」이란 애도문을 실었는데 강의실에서 본 무정의 모습을 회고하고 있다.

9) 위의 책, 104-114면에 신문사 시절의 활동을 설명하였다.

심은 대체로 1910년대 기사에 국한되었다.¹⁰⁾ 시기적으로 30년대와 40년대의 문학예술의 지면으로서 『매일신보』를 향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일제강점기 한시에 대한 자료조사도 수행되었고, 『매일신보』도 그 대상이 되었으나¹¹⁾ 전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특히 30년대 이후의 기사에는 관심이 쏠리지 않았다. 신문에 실린 시화 장르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웠다.

한편으로 『매일신보』가 90년대 들어 축소영인이 되었어도¹²⁾ 그 방대한 규모와 지나치게 작은 글씨 탓에 열람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마저도 최근의 일이라 그 이전 시기에 이 신문의 기사를 찾아서 읽거나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용등시화』가 묻힌 이유는 이밖에도 또 있다. 『매일신보』가 의도적 기피 대상이었다는 점 외에 근대 시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부족한 것이 그보다 더 큰 요인이다.

지금까지 이 시화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인물은 앞서 언급한 조용만 외에 거의 유일하게 李家源(1917~2000)이 있다. 그는 1972년에 출간된 『옥류산장시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茂亭은 젊은 시절에 상당히 기개와 절도가 있었고 文詞가 翩翩하였다. 일찍이 謙所에 있을 때 『榕燈詩話』를 지었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두어 쓰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시화는 舊園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寧齋 李建昌 무리들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茂亭이 말년에 世道에 골몰하여 먼저는 깨끗하게 처신하다가 뒤에는 더럽게 굴어서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으니 안타깝다.¹³⁾

정만조가 1907년 진도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친일행적을 보인 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유배지에서 지은 시화의 가치는 높이 평가하였다. 『용등시화』가 寧

10) 권보드래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매일신보』를 통해 본 한국 근대의 사회·문화 키워드』(2008 동국대학교출판부)나 이희정의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매일신보』(2008 소명출판)를 비롯한 저작과 논문은 1910년대 기사를 다루고 있다.

11) 한영규·이희목 외, 2009 『식민지시기 한시자료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2) 경원문화사 편집부, 1998 『매일신보』, 경인문화사.

13) 李家源, 1972 『玉溜山莊詩話』, 을유문화사, 5면 “然茂亭英年, 頗有氣節, 文詞翩翩. 嘗在謙所, 為 『榕燈詩話』, 無細不撫, 不唯舊園之所不能爲, 寧齋李建昌輩, 亦當不逮也. 茂亭末乃汨沒世道, 先貞後黷, 為當時少輩所訕笑, 惜也!”

齋 李建昌이나 舊園 鄭寅普와 같이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문인이라도 짓지 못한 저작이라 하여 빼어난 수준을 인정하였다. 또 훗날의 친일행위로 그의 저작이 지닌 가치를 매몰시킬 수 없다고 이해하였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견해이다.

한편, 같은 저자는 1997년에 출간한 『조선문학사』에서 “이 시기에는 특히 詩話·批評類가 不振하였다. 李建昌·李學洙 등이 모두 詩話가 있었으나 不滿人意였고, 다만 鄭萬朝의 『榕燈詩話』는 그중의 秀作인 바, 以人廢言할 수는 없을 것이다.”¹⁴⁾라 하여 예전에 시화에서 밝힌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다른 어떤 시화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저자의 친일행위를 근거로 평가절하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하였다.

그와 같은 호평에 걸맞게 『옥류산장시화』에는 『용등시화』에서 많은 분량을 전재하였다. 두 시화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전자가 후자에서 65則을 인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700칙 가운데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중이고, 『용등시화』 전체 분량의 3분의 2를 전재한 것이다. 전재한 양상을 살펴보면, 『榕燈詩話』임을 밝히고 인용한 기사가 1개 則이고,¹⁵⁾ “무정이 일찍이 말했다(茂亭嘗曰)”라 밝히고 전재한 기사가 23개 則이다. 이것만 해도 적지 않은 분량의 재인용이다.¹⁶⁾ 그 나머지 41개 則(일부 시화는 분할하여 전재함)은 인용처와 원저자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전재하면서 일부 수정을 가하였는데 대체로 무정의 글임을 밝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¹⁷⁾ 그렇게 『용등시화』에서 전재한 41개 則

14) 李家源, 1997 『조선문학사 下』, 1550면.

15) 李家源, 1972 앞의 책, 109면 “『榕燈詩話』云：詩人累名，有關數者。（下略）”

16) 구지현, 2007 「“玉溜山莊詩話”의 특성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6, 187-213면; 박순, 2012 「옥류산장시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순, 2013 「연민선생의 한시：淵民先生의 『玉溜山莊詩話』」 『연민학지』 19, 43-103면. 박순(2013)은 『용등시화』를 모두 29번 언급하였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지봉유설』 99번, 『학산초담』 49번, 『열하일기』 28번, 『서포만필』 23번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시화라고 보았다. 이상의 논문은 『용등시화』를 확인하지 않고 쓴 한계가 있다.

17) 『용등시화』를 전재할 때 정만조의 평가를 담은 45칙(『玉溜山莊詩話』 81면)과 李重夏의 엄격한 창작태도를 논한 59칙, 하동 출신 문인 金昌舜을 논한 60칙, 유길준의 천재성을 다룬 92칙(『玉溜山莊詩話』 84면)을 보면 정만조의 존재가 노출되는 대목만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은 『옥류산장시화』의 독창적 글로 잘못 간주될 수밖에 없다. 『옥류산장시화』의 가장 큰 특징과 가치로 근세의 시인을 다룬 내용이 많다는 점을 꼽는다.¹⁸⁾ 하지만 조선말기의 시인을 묘사한 내용의 절대 다수가 인용처와 원저자를 밝히지 않은 채 『용등시화』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장 큰 미덕의 실질적 소유자는 『옥류산장시화』가 아니라 『용등시화』로 복원해야 한다.

3. 18·19세기 한시사의 구도 제시

『용등시화』는 97개의 則數를 가지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 시인과 내용은 부록에 표로 제시하였다. 그 수량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매일신보』의 횟수와 순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혼동이 심하다. 기사를 수록한 순서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나 대략 앞에서부터 시대순으로 쓰려는 의도가 보인다. 앞부분에 童蒙詩가 실리고 후반부에 승려와 여류시인을 다룬 것은 한국 시화의 일반 서술법을 따르고 있다. 다만 그 중간에 실린 내용에서는 일정한 질서를 찾기가 어렵다.

『용등시화』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다루고 있는 시인이 저자와 동시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절대다수는 동시대 시인으로 자신이 직접 접촉한 시인이고, 일부만이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고종 이전 시대 시단에서 활동한 시인을 다룬 시화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는 고종 시대 시인을 다룬 시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무정의 시화는 완전하게 독창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시화에서 역대 조선의 시화와 내용이 겹치는 것은 극히 드물다. 거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무정의 시화에서만 찾아진다고 할 만큼 신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시화를 있는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적당하게 변형하여 수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조선 시대나 근현대 시화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르다.

기왕의 시화에서 작가와 작품이 찾아지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1則의 李恒福

18) 각주 16)의 논문에서 확인된다.

童蒙詩와, 2則의 李達과 李喜之의 시, 11則의 누정시 대표작, 그리고 95則의 여류시 명가를 거론한 정도가 전부이다. 겨우 서너 칙에서 과거 시화집에서 익숙한 이름을 다루고 있을 뿐인데 인용한 작품도 사실 몇 편에 그친다. 서술한 내용도 어떤 영향을 받았다가보다는 작가나 작품을 거론한 것일 뿐 저자 고유의 내용이다.

이항복의 시 2편을 다룬 1則은 존경하는 소론 선배의 시를 소재로 아동한시의 텍스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의의 중심은 「題胡獵圖」라는¹⁹⁾ 시에 있다. 다른 아동한시는 과거의 시화에서 언급하였으나 이 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문집에서 이 시를 아동한시로 수록했으나 장년기 이후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논증한 무정의 견해는 참신하다.

2則에서는 이달과 이희지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이달의 「採蓮曲」은 시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반면, 이희지의 시는 李德懋의 『清脾錄』에서 높이 평가한 것이 유일하다.²⁰⁾ 11則에서는 전국의 유명한 누정에 불인 都元興, 金黃元, 申維翰, 李廷龜, 朴闡, 柳根의 명구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 명구들은 이전 시화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그러나 무정은 그 시구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름난 문장가들조차 수준이 떨어지는 시를 지었다고 혹평하며 누정시 창작의 어려움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잘 쓴 제영시의 한 사례로 失名過客이 진주 촉석루에 썼다는 시를 인용하였다.²¹⁾ 따라서 누정시를 다룬 일반 시각과는 관점이 다르고 새로운 내용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許蘭雪軒 등 여류시 명가를 논한 95則도 기왕의 관점과는 달라서 답습의 혐의가 없다.

19) 시의 원문은 “陰山獵罷月蒼蒼, 鐵馬千群夜踏霜。帳裏胡笳三兩拍, 樽前醉舞左賢王。”이다. 『백사집』에는 제목이 「單于夜宴圖」로 되어 있다.

20) 李德懋, 『青莊館全書』 권34, 『清脾錄』 3(한국문집총간 257-259집) “李凝齋喜之, 字士復, 流利韶雅, 紹有風致。其「江上襯詠」: ‘水舍鷄鳴夜向晨, 柳梢風動月橫津。漁歌只在江南北, 一色蘆花不見人。’扇頭壁間, 人無不書之。”

21) 하지만 과객의 시는 중국 시인의 시이므로 무정이 착각한 것이다.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권3, 「壬辰十二月十八日丁卯」“(望海亭) 樓凡二層, 下層曰知聖樓, 傍書康熙十年重修。上層內外, 皆有扁額, 內曰望洋舒抱, 傍書己未春西湖尙標題, 外曰海岳朝宗, 傍書己卯春閏中梁世懋。樓中題咏甚多, 有一詩曰: ‘嘗聞詩人長十丈, 始知今日長十丈。若非詩人長十丈, 何緣放屎此壁上’蓋譏拙詩題壁者, 可爲一噱。”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나마 기존 시화와 관련된다. 그 나머지는 오로지 이 시화에서만 다루었거나 그도 아니라면 이 시화에서 처음으로 다룬 내용이다. 따라서 『용등시화』는 무정 자신의 안목을 담은 완전히 독창적 내용을 담은 시화임이 분명하다. 그 점에서 역대의 어떤 시화와 비교해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이상에서 언급한 시인 외에 고종시대 이전의 시인을 다룬 기사를 검토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사와 다루고 있는 내용을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則: 四家 이전에 鄭太和가 쓴 宋詩風 시
- 4則: 李匡德의 性情을 표현한 시
- 7則: 金祖淳의 대답함
- 8則: 李友信의 香奩體 시
- 12則: 初年詩를 버린 申緯와 李建昌
- 14則: 金正喜 작품으로 오인한 悽亡詩
- 17則: 何字를 잘못 쓴 朴齊家의 시
- 18則: 平仄을 오용한 李德懋와 李建昌의 시
- 31則: 李匡德의 금강산 명시
- 39則: 비방을 부른 李尙迪과 姜瑋의 작품
- 42則: 아부하는 시를 쓴 李晚用과 鄭基雨
- 46則: 經書의 시어를 활용한 申緯
- 55則: 도연명과 李亮淵의 시풍
- 64則: 李相璜 시의 분명함
- 66則: 체험을 쓴 朴齊家와 申緯의 시
- 72則: 紫霞小樂府 변증
- 90則: 시풍의 양대 조류로 洪春卿, 鄭士龍, 崔峴의 거론

모두 17개가 고종 이전의 작품이다. 그 가운데 12칙, 18칙, 39칙, 42칙은 내용의 실질적 중심이 고종시대 시인에 있고, 다른 則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과거 시인을 다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鄭太和를 다룬 3則은 실제로는 영조 말엽에 四家의 시풍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정태화의 시를 검토하고 있다. 전체에서 대략 6분의 1 내지 5분의 1이 고종 이전 시대의 시인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아무리 멀어도 다수가 정조 시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논의대상이 시단의 중추적 시인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각 기사를 자세히 분석해본다. 가장 앞선 시기의 시인을 다룬 기사가 조선 중기의 洪春卿, 鄭士龍, 崔峴을 다룬 90칙이다. 여기에서는 조선 시풍의 양대 조류를 近古시대의 四家, 紫霞 申緯의 경향과 그에 상반된 조선 중기 이전의 경향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속하는 洪春卿과 鄭士龍, 崔峴은 絶調로 명성이 높았지만 모두 결함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현대의 姜璋나 李建昌의 시는 결함이 없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정조 이후 근대의 시에 호감을 보였다.²²⁾ 정조 시대를 근대 한문학의 기점으로 보고, 근대 한문학의 방향을 긍정적 시선으로 보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²³⁾ 설령 먼 시기의 시인을 다루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당대의 시를 말하기 위한 전제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무정의 시화는 동시에 시와 시인을 논하고 평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90칙 외에 언급한 시인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李匪德, 李德懋, 朴齊家, 李友信, 李相璜, 金祖淳, 申緯, 李亮淵, 金正喜, 李晚用, 李尙迪이다. 대개는 영조말엽부터 정조대에 이르는 18세기 후반의 시인이고, 그 이후는 순조대부터 현종대에 이르는 19세기 전반의 시인이다. 무정이 시단에 참여하기 시작한 1860년대 고종조 시단과 직접적으로 詩脈이 닿아있는 직전 1세기의 시인만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 시기를 무정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앞서 언급한 3則과 90則을 인용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시를 논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한다. “중엽 이전에는 오로지 唐詩를 일삼았는데 健陵(正祖-역자주) 이후로 四家(雅亭 李德懋, 楚亭 朴齊家, 治齋 柳得恭, 惕齋 李書九-원주)가 오로지 宋詩를 일삼아서 詩體가 一變하였다.” 이 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건릉 이전에도 宋詩의 理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²⁴⁾

22) 정만조, 위의 책, 90칙 “世之論東詩者, 有二說. 只讀唐詩者, 曰: ‘今不如古.’ 讀近古四家及紫霞詩者曰: ‘古不如今.’ 盖我東中葉前, 專尚唐響, 詩多雄健, 而篇章字句間不無得失. (중략) 崔簡易峴, 題僧軸詩: ‘磬殘石竇晨泉滴, 燈剪松風野鹿啼.’ 最其警句, 而殘剪字對偶, 稍不穩. 今人姜秋秋琴·李寧齋, 諸作, 雖無如此警絕, 而亦無如此疵類.”

23) 무정이 근대를 설정하고 한문학을 정리한 관점은 정은진(2013)을 참조하기 바람.

24) 정만조, 위의 책, 3칙 “論東詩者, 皆曰: ‘中葉以前, 專事唐聲, 自健陵以後, 四家(李雅亭德懋, 朴楚亭齊家, 柳冷齋得恭, 李惕齋書九)專事宋理, 詩體一變.’ 此言, 非不然矣. 而健陵以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시를 논하는 이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唐詩만을 읽는 이들은 ‘지금이 옛날만 못하다’라고 말하고, 近古시대의 四家 및 紫霞 申緯의 시를 읽는 이들은 ‘옛날이 지금만 못하다’라고 말한다.²⁵⁾

두 개의 인용문은 『용등시화』에서 詩史의 큰 흐름을 언급한 대표적인 기사인데 唐詩와 宋詩로 시풍변화를 가늠하고 있다. 모두 四家를 시풍 변화의 關節로 보고, 申緯를 그 계열로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 18세기 후반에는 四家가, 19세기 전반에는 申緯가 시단의 중추로서 변화를 이끌어갔다는 관점을 펼치고 있는데 설득력 있는 견해이다. 무정은 근대 시 변화의 주류를 四家에 두고 있으면서도 申緯의 시를 네 군데 정도에서 다루어 비중을 더 크게 두었다. 당대와 가까워질수록 더 중시하는 경향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시사를 파악하는 이와 같은 선명한 구도는 무정의 참신한 견해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정만의 독자적 견해라 할 수 없고 그가 속한 시대 및 시사와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시단에는 당대 최고의 시인을 申緯로 인정하고, 그 이전 18세기 시단의 주축을 四家로 보는 시선이 거의 통설로 굳어져갔다. 다만 四家 등에 대한 평가는 분명한 비평적 언어로 표현된 것이 많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오면 비평문으로 등장하고 있다.²⁶⁾

무정이 『용등시화』에서 설정한 구도는 이후 문학사를 보는 그의 시작으로 점차 계통을 갖추게 되는데²⁷⁾ 그와 같은 구도를 비평적 언어로 표현한 문학사가로

前, 亦非無宋理也.”

25) 정만조, 위의 책, 90쪽. 원문은 각주 22)에 제시함.

26) 四家詩를 보는 시단의 견해는 朴齊永이 사가시에 주석을 단 『輯註巾衍集』(이화여대, 국회도서관 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종 때의 문신 박제영은 南村 지역에서 명성을 누린 문인으로 李重夏 등과 시문을 수창하였다. 그는 「輯註韓客巾衍集序」에서 ‘사대부 가운데 시를 잘 짓는 이들이 칭송하는(士大夫之工詩者稱道之)’ 사가시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데 南社의 시인들과 견해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뿐만 아니라 南社 동인인 呂圭亨이 「論詩十首」 제3수(『荷亭集』 권1)에서 四家詩를 논한 것도 당시 시단의 견해를 보여준다.

27) 鄭萬朝, 1957 「朝鮮詩文變遷」 『朝鮮學報』 11, 朝鮮學會 “然自是文風稍振, 文而洪良浩以博雅, 金邁淳以蒼健, 至洪奭周以醇正, 宗匠文苑。詩而所謂四檢書, 始祛偏邦固陋, 而猶未盡善。至申緯, 而獨步當時, 號爲大家。”

는 조선말기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무정이 독보적이다. 김태준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문학사가 대부분은 문학의 전개과정을 일종의 생명체와 같이 이해하고 18세기 이후 쇠퇴기에 접어들어 조선말기 이후 漢文種子가 끊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과²⁸⁾ 비교해보면 차이가 현격하다.

이렇게 무정은 지난 1세기 시단의 큰 맥락을 대체로 정조시대의 四家詩를 중심에 두고, 그 이후 시기는 申緯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외에 李匡德, 李友信, 李相璜, 金祖淳, 李亮淵, 金正喜, 李晚用, 李尙迪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언급의 많고 적음이나 다루는 비중에서 四家와 申緯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李友信, 李亮淵, 李晚用과 같이 간과하기 쉬운 주요 시인에 사적인 위상을 부여하여 다루었다는 것은 근대 시기의 批評史家 내지 文學史家로서 높은 안목을 보여준다. 높은 안목을 바탕으로 삼아 정조 이후 시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토대를 두고 고종시대 한시단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18세기와 19세기 시단의 전개과정을 단순한 쇠퇴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계승하여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훨씬 객관적이다.

이렇게 『용등시화』에서 조선의 근대 한시단에 깊이 있는 이해와 자부심을 보여준 무정의 사유는 이후 「朝鮮詩文變遷」과 「朝鮮近代文章家略敍」라는 학술논문으로 발전하였다. 京城帝大 강의안이었던 이 두 논문은 영조, 정조 이후 문학을 근대의 출발로 삼아 그 이후 시기 시문 내지 문장가의 변화과정을 거친 구도와 문장으로 정리하였다.²⁹⁾ 두 논문은 『용등시화』 저술 이후 노론을 비롯한 다른 당파의 저작까지 섭렵하고 학습한 공부가 덧보태어져 충실히 더했고, 객관적 시야를 더 확보하여 발전시킨 논지가 보인다. 그러나 18세기와 19세기의 문학사를 보는 기본 시각과 구도는 『용등시화』에서 확장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朝鮮近代文章家略敍」에 고종대 문장가로 학계의 상식과 다르게 李應辰과 李象秀, 李根洙가 포함된 점이나 문장에서 經術을 특별히 강조한 점, 그리고 姜瑋, 김택영, 이건창, 황현, 이남규 등 南社의 구성원을 대거 포함시킨 점 등을 『용등시화』의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용등시화』는 18세기와

28) 안대희, 2016 「漢詩史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64, 31-57면.

29) 이종묵, 2005 「일제강점기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 13, 421-445면; 정은진, 2013 앞의 논문; 조성면, 앞의 논문 참조.

19세기의 한시사 구도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파악한 거의 첫 번째 저술이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4. 고종 시대 시단의 증언

앞장에서 다룬 내용을 제외하면 『용등시화』는 거의 전체가 동시대 작가를 다루고 있다. 역대 시화 가운데 이만한 비중으로 동시대 시인 곧 幷世의 시인을 집중적으로 다룬 시화는 없다. 이 시화의 목적이 동시대의 시단과 시인을 증언하는 데 있다. 그 이전 시기를 포함한 것은 동시대 시단이 형성된 과정을 더듬어보기 위한 검토의 단계였다. 『용등시화』가 지닌 첫 번째 가치는 바로 19세기 후반기 고종 시대 시단을 전체의 시야에서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데 있다.

불행하게도 19세기 후반 전근대가 끝나가는 무렵의 문인들이 창작하는 현장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남겨진 자료가 부족하다.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면서 모든 전통적인 것들이 거침없이 허물어지던 시기라 차분하게 직접 체험한 시대의 문화예술을 되짚어보는 여유를 누리지 못했다. 특히나 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회고하는 저술을 남기지 못했다. 그 점에서 무정의 『용등시화』는 대단히 큰 가치를 지닌다.

무엇보다 무정 자신이 조선말기 시단의 주축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선대로부터 형성된 가학과 黨脈과 學脈의 혜택을 누려서 무정은 당시 한양 시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인그룹 南社에 속해 있었다. 무정은 10대 초반인 1860년 대부터 강위, 이건창을 비롯한 기라성 같은 시인들과 동인활동을 시작하여 그가 진도로 유배가기 직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문단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무정이 체험하고 견문한 30여 년 풍경은 그 자체로 시단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정보이자 지식이었다. 굳이 타인의 견문을 빌리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다. 실제로 『용등시화』의 핵심은 무정 자신이 체험한 시창작의 현장이다. 그가 확인해준 시인의 명단 가운데 연대가 밝혀지는 주요 인물을 연대순으로 다음에 나열한다.

鄭元容(1783~1873), 鄭允容(1792~1865), 申佐模(1799~1877), 趙徹林(1803~?), 李豐翼(1804~1887), 金尙鉉(1811~1890), 李喬榮(1813~1893), 鄭日愚(1816~?), 鄭顯庚(1817~1899), 鄭基春(1819~1876), 姜瑋(1820~1884), 李象秀(1820~1882), 尹致聃(1821~?), 李啓五(1822~?), 鄭健朝(1823~1882), 趙昌永(1824~?), 李根洙(1824~?), 尹成鎮(1826~?), 沈琦澤(1826~?), 閔永穆(1826~1884), 洪岐周(1829~?), 成大永(1829~?), 徐相雨(1831~1903), 朴齊恂(1831~?), 鄭基雨(1832~1890), 鄭範朝(1833~1898), 金允植(1835~1922), 南廷哲(1840~1916), 金弘集(1842~1896), 李重夏(1846~1917), 鄭憲時(1847~?), 呂圭亨(1848~1921), 金澤榮(1850~1927), 宋榮大(1851~1936), 李建昌(1852~1898), 黃玹(1855~1910), 李南珪(1855~1907), 吳翰應(1854~?), 瘾吉濬(1856~1914), 李建昇(1858~1924), 鄭丙朝(1863~1945).

군소작가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조선말기의 주요작가인 姜瑋, 李象秀, 洪岐周, 鄭基雨, 金允植, 李重夏, 呂圭亨, 金澤榮, 李建昌, 黃玹, 李南珪를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한말사대가로 불리는 강위, 김택영, 이건창, 황현뿐만 아니라 문단의 중진이 포진하고 있다. 소론인 무정의 당파에 따라 소론이 주축을 이룬 한계가 있으나 19세기 후반기의 주요한 시인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현재 전하는 어떤 저술에서도 이만한 규모로 그 시기 시단을 정리하여 보여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나온 저술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가운데 주요 시인의 시풍과 개성을 다른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 25칙 呂圭亨의 등단과 시체
- 26칙 李南珪의 시풍
- 59칙 李重夏의 엄정한 시론
- 87칙 李象秀 李建初 부자의 시풍
- 88칙 姜瑋 시의 風神
- 91칙 金弘集 申佐模 鄭顯德의 시
- 92칙 瘦吉濬의 천재성

조선말기 한시단의 주요작가와 시풍을 이해하는 데 큰 참고가 되는 항목들이다. 그중에서 19세기 중후반 시단을 대표하는 시인이 秋琴 姜瑋인데 그로부터

시를 배운 무정은 가장 많은 기사를 할애하여 그의 시풍과 일화를 소개하였다. 창작에 익힌 강위의 일화를 소개한 다음 기사는 그의 시풍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추금 선생이 나를 비롯한 詩社의 벗들과 함께 海棠樓에서 分韻詩를 지었다. 선생이 지은 長短句는 다음과 같다. “늙은이가 지나친 우려로 감기에 걸리고/미친 말로 세상을 어찔하게 놀라게 했네./북쪽은 악한 짓 잘하고 남쪽은 줄을 대느라 바쁘니/이런 때 편히 자고 배불리 먹으면 어찌 대청마루 위의 제비가³⁰⁾ 아니라.” 당시의 많은 고관들이 시를 듣고서 자기들을 조롱했다 하여 날마다 비방이 일어났다. 추금이 하는 수 없이 ‘편히 자고 배불리 먹으면’이라는 구절을 고쳐 “옛 사람은 밝게 경계해 대청마루의 제비를 슬퍼했네”라고 했다. 그러자 비방이 뚝 그쳤다. ‘옛 사람은 밝게 경계해 대청마루의 제비를 슬퍼했네’와 ‘편히 자고 배불리 먹으면’이라는 구절의 말뜻이 뭐가 다른가? 다만 시어의 구사가 조금 부드러워졌을 뿐이다. 오늘날 비방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추금 선생의 시에는 시대를 상심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말이 많다. 이 장단구의 끝 구절은 “에라! 삼십년 뒤에 이 시권을 보기나 기다리자 꾸나”이다. 지금 삼십년이 흘렀는데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가 인천 앞바다에서 전쟁 중이라 한다. 선생이 눈을 치뜨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헤아려 미리 알아차린 것이 왜 아니겠는가?³¹⁾

시화에서 언급한 시는 1878년 음력 9월 9일 姜璋가 李根洙를 비롯한 12명의 南社 동인들과 함께 연海棠樓 시회에서 지은 古詩이다.³²⁾ 시는 혹한에도 고관

30) ‘대청마루 위의 제비’는 자신의 안락을 위해 권세가에게 빌붙는 사람을 비유한다. 杜甫의 「去矣行」에 “그대는 보지 못했나 팔찌 위의 매가. 한번 배부르면 즉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어찌 대청마루 위의 제비가 되어, 진흙 물고 따뜻한 곳에 빌붙으랴(君不見鵝上鷺, 一飽則飛掣, 焉能作堂上燕, 衡泥附炎熱)”라는 구절이 보인다.

31) 정만조, 앞의 책, 39쪽 “姜秋琴先生, 與余及社中諸友分韻於海棠樓, 先生作長短句詩, 有曰: ‘老夫過計發寒疾, 狂言驚世如瞽眩。北氛易惡南風競線, 此時晏眠飽食非堂上燕。’時宰多聞之, 以爲嘲我輩, 誇言日興。秋琴不得已改‘晏眠飽食’句, 曰‘古人炳戒悲堂燕’。於是謗者遂止。‘古人炳戒悲堂燕’與‘晏眠飽食’句, 語意何異? 但遣辭稍緩耳。今之謗者, 誠愚矣哉! 先生詩多傷時憂國之語, 此長短句末曰: ‘且待三十年後看此卷。’今爲三十年, 而日露兩國, 戰于仁川海上云。豈先生盱衡揣摩, 有所預知耶?”

32) 『용등시화』 67則에서 다룬 李根洙의 四言詩도 이때 함께 지은 작품이다. 이근수의 『수암집』 권1에 「海棠樓分韻, 東坡集中’讀書已過五千卷, 此墨足支三十年’, 得墨字」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들은 호의호식하여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마는, 백성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이건창은 유배지에서 고생하며 남사 동인을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자리에 있는 동인들이 모두 정진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치풍자가 스며있고, 그 풍자가 고관들의 비위를 건드려 자구를 수정하게 됐다는 사연이다. 시화에서 말한 대로 『古歡堂收艸』에는 자구가 수정되어 있는데 『용등시화』에서 언급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정이 가해졌다.³³⁾ 이 시화는 작품이 어떤 창작배경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 밝혀주어 작품과 시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길로 안내한다. 더 나아가 강위의 시가 “시대를 상심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말”이 많은 詩史의 성격을 지닌 점을 다른 평자들도 공감하였는데³⁴⁾ 그의 작품이 실제로 당시 집권층과 갈등을 빚고 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체적 실화를 제공한다. 이것은 연구자에게 많은 시사를 던지며 다른 기사와 함께 강위의 시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³⁵⁾

조선말기 한시단의 동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시화는 南社라는 시사의 활동을 중언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南社는 한양의 남쪽 곧 남산 북쪽의 會賢坊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살면서 창작활동을 공유한 詩社이다. 少論 문인이 주도하여 洪岐周, 李重夏, 鄭基雨, 呂圭亨, 李建昌, 鄭萬朝 등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 많은 시인들이 참여하였다. 시화 곳곳에서 이른바 ‘南社諸名勝(남사의 여러

33) 姜瑋, 『古歡堂收艸』 권10, 「同李韋士根洙·李二堂·朴小舲·呂荷亭·徐怡堂·葆堂·鄭懋亭·徐養泉周輔·吳經齋·白小香之珩·李蘭琥琦·李心荃玹軾·夜集海棠樓·作九九銷寒帖·分讀書已過五千卷·此墨足支三十年·得卷字」(한국문집총간 318집) “(상략) 歲晏怪無一字來, 萬字何能道縹緲. 但願仁天多雨露, 早放瑞羽集畿縣. 羣賢俱懷濟時才, 薫琴贊治陽和扇. 老夫過計發寒疾, 狂言驚世如瞽眩. 北氣易惡南風競, 此時九重天上大開延英殿. 眼前耽樂忽遠圖, 古人炳戒悲堂燕. (중략) 昌時名業貴自異, 且待三十年後看此卷.” 『용등시화』에서 언급한 ‘此時晏眠飽食庸非堂上燕’이 ‘此時九重天上大開延英殿’으로 수정되어 있어서 비방을 피해 더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34) 배기표, 2009 『秋琴 姜瑋의 海外紀行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5-44면.

35) 이건창의 아우 李建昇 역시 남사 동인의 한 사람인데 그는 1914년 간도에서 지은 시 「우연히 강위의 고환당집을 읽고 감회가 있어(偶讀姜古懽集有感)」(『海耕堂收草』)에서 해외 통상을 서둘러 부국강병하지 않으면 타국의 노예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강위의 옛 담론을 추억하며 이 시를 거론하였다. 그 시의 주석에서 “고환의 시에 ‘에라! 삼십년 뒤에 이 시권을 보기나 기다리자꾸나(且待三十年後看此卷)’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작품을 보니 을사년(1905)과 30년이 떨어져서 기발하게 들어맞는다.”라고 하였다.

명사)’들이 벌인 시회활동 현장과 거기에서 창작된 작품과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39칙도 南社 동인들과 강위가 함께 시를 지을 때의 사연이다. 45칙은 달밤에 동인들이 무정의 집에 모여 시를 지은 사실을 언급하고, 27칙은 동인 洪岐周, 李重夏, 鄭基雨, 李建昌 등 4명의 시를 뽑은 『韓四客詩選』을 소개하였다. 76칙은 상원군수로 부임하는 徐丙壽를 동인들이 전송하는 사연이다. 이 밖에도 시화에 등장하는 많은 시인들이 남사의 구성원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다른 논문으로 대신한다.³⁶⁾

시단과 시의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기사를 한 가지 더 듣다면, 申緯와 李建昌의 초년 작품을 문집에서 배제한 사실을 거론하고 초기작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기사이다.

시인이 시고를 남겨둘 때에는 흔히 초년에 쓴 시를 산삭한다. 예를 들어, 자하 신위의 『警修堂集』 30여 권은 모두 40세 이후에 지은 작품들로서 그 이전의 시고는 다 불태웠으니 많이 아깝다. 자하도 뒤에 이전의 작품을 추슬러 ‘焚餘錄’이라 이름 붙였다. 근래에 나온 영재 이건창의 시고에도 초년의 작품이 다 삭제되었다. 아끼는 작품을 베어 내버린 것이 한탄스럽기만 하다. 내가 영재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겨우 열살이었고 영재는 열여섯 살이었다. 그가 지은 感懷詩는 “나는 늘 뒷시대에 태어났다 말했는데, 지하에서 일으켜 세운다면 누구를 따를까? 그야 마땅히 영웅호걸 陳亮이나, 문채와 풍류를 지닌 杜牧이라네.”이다. (중략) 이런 작품들을 남김없이 버릴 수 있을까? 영재는 20세 이후부터 점차 순수하고 고아한 경지에 들어가서 이전 작품을 모두 버렸지만 대부분 꼭 전해져야 할 시들이었다.³⁷⁾

창작의 역량이 성숙한 다음 미숙하게 여긴 초기작을 시인 스스로 버리는 관습을 비판하고 신위나 이건창은 초기작의 수준도 우수하여 버리기 아깝다고 하였다. 신위의 경우는 무정이 밝힌 것처럼 시인 자신이 스스로 초기작을 수습하였

36) 南社의 실체와 활동양상은 필자의 「조선말기의 문예그룹 南社와 동인들의 문학활동」(2017 『한국한시연구』 25 수록예정)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37) 정만조, 위의 책, 12칙 “詩人存藁, 每刪初年詩, 如紫霞申公(名緯)『警修堂集』三十餘卷, 皆四十以後作, 其前藁皆焚之, 多可惜. 公亦追存之, 名曰焚餘錄. 寧齋近藁, 亦盡去初年作, 其割愛可歎. 余初見寧齋時, 余年纔十歲, 寧齋爲十六歲, 其感懷詩曰: ‘每道吾生苦後時, 九原如作可從誰? 英雄豪傑陳同父, 文采風流杜牧之.’ (중략) 此等作, 可盡棄耶? 寧齋自二十以後, 漸入醇雅, 所以並棄前作, 而槩多必傳者.”

고,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警修堂集』 낙질 2책(古 3447-46-1-2)에 ‘焚餘錄’ 4권으로 수습되어 있다. 이 시집에 1787년에서 1808년까지 43세 이전의 시를 500수 가까이 수록했다.³⁸⁾ 무정이 말한 ‘焚餘錄’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분여록’의 존재와 가치를 처음 밝힌 사람이 바로 무정이다.

이건창의 초기작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金澤榮이 1917년에 중국에서 출간한 『明美堂集』이 초기작을 비롯해 주요작을 다수 누락한 거친 편집임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게 지적되었으므로 부연 설명하지 않는다.³⁹⁾ 무정이 말한 영재의 시고는 어떤 사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간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최근에 『韓四客詩選』에 실린 영재의 「初筮集」 선집이 공간되었는데 그 작품은 20대 초기 시가 주축을 이룬다.⁴⁰⁾ 「初筮集」의 존재는 이건창 시세계의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창 스스로 성숙하지 않은 시기의 시를 공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⁴¹⁾ 무정이 소개한 세 편은 그보다도 앞선 10대의 작품으로 아마도 무정이 한창 이건창을 따르던 16세 이후 20대 이전의 시로 추정된다. 무정이 증언한 이건창의 정신세계와 시적 성취는 이건창의 성장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두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용등시화』의 가치는 대부분 내용이 간접적 견문이나 독서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저자 본인이 직접 체험한 시단의 활동상, 시인들과 교유양상, 주고받은 작품이라는 점이다. 시단 현장의 견문과 체험이 그 현장에 있었던 무정의 기록을 통해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이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그래서 무정이란 기록자의 존재를 삭제하고 『용등시화』의 일부를 읽는다면 기록자의 시선을 뭉개는 것이다. 기록자의 시선이 사라진 기록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서 맥락이 왜곡되거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한다.⁴²⁾

38) 자세한 사실은 이현일, 2003 「申緯의 焚餘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2, 125-163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39) 이희목, 2005 『대동문화연구총서 25 이건창 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0) 『문현과학석』 33 · 34(2005 겨울 · 2006 봄, 문현과학석사)에 영인되어 있고, 박철상의 해제가 실려 참고가 된다.

41) 姜瑋 選, 『韓四客詩選』「初筮集」小序 “嘗自言, ‘古人文言, 未嘗二十前作者. 盖示人以樸, 良工不爲, 吾豈安於是哉?’”

앞에서 인용한 강위와 이건창의 사연은 모두 무정 자신이 직접 현장에 있어서 목도한 사실이다. 창작의 현장을 보여주는 기사 대부분은 다른 기록에서는 볼 수 없고 오로지 여기에만 나오는 일화이다. 그중 하나가 저명한 시인 梅泉 黃玹이 시를 짓다가 의원에게 주먹으로 맞기까지 한 사연이다. 다음은 38칙 전문이다.

시에서 일을 쓸 때에는 사실에 꼭 들어맞도록 하는 것이 정말 좋다. 그러나 사실에 꼭 들어맞고서도 비방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긴다. 梅泉이 司馬試에 합격하였다. 그때 나는 병을 끙끙 앓느라고 축하 인사를 하러 가지 못하고 그냥 편지를 보내 끈끈한 정을 표하였다. 매천이 편지를 받고서 내게 문병을 왔다. 내가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병세를 알아보고자 “그래 시는 지을 수 있소?”라고 물었다. 내가 간신히 “그냥 운자나 내줘보시죠.”라고 대꾸하였다. 우리 집의 종 가운데 글자를 아는 아이가 있어서 곧 운자를 내주고 쓰게 하였다. 때마침 시를 잘 쓰고 의술에 정통한 素癡 朴基昌이란 의원이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평소 매천과도 아는 사이였다. 매천이 지은 시에 “정이 깊어 유독 남의 급제를 기뻐하고, 병이 심해도 내가 올 것을 알아차렸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끝 구절은 “의사와 좋아이도 모두 시를 잘 쓰네.”라고 썼다. 이는 그 날의 사실에 꼭 들어맞도록 쓴 시였다. 그런데 소치는 의사와 좋아이를 나란히 거론한 것 때문에 대단히 격분하여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욕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천이 크게 겁을 내고서 조용히 달아났다. 소치가 내 집에 묵은 날이 한 달이 넘었는데 매천은 늘 그가 없는지를 확인하고서야 찾아와 끝내 서로 부딪치지 않았다.⁴³⁾

무정을 문병하러 온 황현이 시를 지었다가 의사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화다. 무정은 황현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 내용을 쓴 것이 아니다. 황현은 본대로 시를 썼고, 그런 창작태도가 옳다. 그러나 의사의 처지에서 종과 같이 언급된 것은 큰 모욕이다. 황현은 눈치코치 없이 시를 쓴 보복을 제대로 당한 것이다. 이 일화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실화로서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 이밖에도 걸출한 시인인

42) 『옥류산장시화』에서 무정이란 기록자를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전재한 40여 개 則의 시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43) 정만조, 위의 책, 38칙 “詩之用事, 切實固佳, 而以切實而有招謗者. 黃梅泉玹, 登司馬料, 時余沈痼未得賀問, 只馳書縋繩. 梅泉見書來訪, 見余呻吟不能起, 欲試病勢, 問曰: ‘尙能詩乎?’余強應曰: ‘第拈韻.’余家僅有能識字者, 卽出韻書之. 邇朴素癡基昌, 能詩而精於岐黃, 爲余病來留, 素與梅泉相知者. 梅泉詩曰: ‘情深偏是人科喜, 病劇猶能我到知.’末句曰: ‘醫師童僕摠能詩.’蓋當日用事之切實也. 素癡以醫師童僕之並舉大憤懊, 至拳踢以辱之, 梅泉大畏默逃. 素癡之館於我者月餘, 梅泉每闕其亡而來, 終不相還.”

李晚用을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궁지에 몬 세도가 金炳冀의 가증스런 소행을 밝힌 42칙의 내용도 흥미롭다.

이처럼 『용등시화』의 대다수 기사는 다른 저술의 내용을 재론하거나 재인용하지 않고, 거의 모두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기 때문에 남다른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용등시화』는 무정이 중언한 고종시대 시단의 활동상이면서 동시에 지성인들의 숨겨진 일화를 기록한 빼어난 야사의 하나이기도 하다. 당시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서도 가치 있는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용등시화』의 가치는 현재에는 거의 존재가 묻힌 여향시인이나 지방문인의 존재와 작품의 성취를 크게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南社와 관련을 맺은 유명 무명의 시인들이 시화에는 다수 등장한다. 시를 잘 지은 李鶴遠이 이건창의 소개로 시사에 처음 나온 사연(21칙), 순창 아전의 아들로 시를 잘 지은 李鉉軾(22칙), 충청도 강경의 客主로 시를 잘 지은 方達周(34칙), 경상도 영덕 아전의 서자인 朱孝祥(35칙), 하동출신 시인 成蕙永과 金昌舜(60칙), 순창의 시인 薛奎錫(80칙), 湖西의 떠돌이 시인 沈相(82칙), 江景의 시인 楚江 金商雨 부자(85칙), 신분이 낮으나 시재가 있는 趙熙平, 李寅天, 南相說(89칙), 그리고 무정이 직접 만나본 승려 시인(93칙, 94칙)과 기녀 시인(95칙~97칙) 등을 들 수 있다. 조선말기 시단에서 크고 작은 활약을 한 시인들로서 그들에 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문헌이다. 그들의 사연은 하나하나가 흥미로운데 그중에 이현식의 사연을 소개한 21칙의 내용 전문을 다음에 인용한다.

내가 어릴 때 內醫院 하급관리인 李秉遠란자가 있어 우리 집에 왕래하였다. 그는 당시 순창 관아의 사무를 대행하는 京邸吏였다. 하루는 선친을 뵈러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 선친이 이유를 묻자 그가 말을 꺼냈다. “제가 순창에 가서 경저리 품삯 수천 錢을 받아서는 주린 배를 채우라고 집에 보냈습니다. 어제야 집으로 돌아갔는데 쫄쫄 굶는 끓이 전과 똑같은지라 아내에게 물었더니 ‘애가 가져 가버려서요.’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아이를 불러 캐묻자 ‘그 돈으로 『佩文韻府』, 『全唐詩』, 『淵鑑類函』을 샀습니다.’라고 답하길래 살펴봤더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소인은 이제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친이 기특하게 여겨 “자네 아들이 몇 살인가?”라고 물었더니 그가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몇 년 후 秋琴 선생이 우연히 이르러

쥐고 있던 부채를 보여주었는데 두 편의 시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남산 기슭에 가을이 맑아 자주와 비취빛 쌍이고, 석양이 반쯤 드리워 누대에 쓴아지네. 시 읊다 韓愈와 부딪힐 걱정은 없나니, 서풍에 비단부채 펼치고 천천히 걸어가네.” “십자로 끄트머리 두어 칸 초가집에, 날마다 문 닫고서 책을 안고 누워있네. 오동나무 우물가의 여뀌꽃에 비 내릴 때, 배 위에서 낚시하던 강물로 꿈이 찾아가네.”

부채 끝에 南臯 李鉉軾이라 써놓았다. 내가 누구냐고 묻자 선생께서는 “이병규의 아들일세.”라고 답했다. 내가 선생과 함께 곧바로 그를 찾아가서 드디어 친하게 지냈다. 나중에 그는 호를 心荃으로 바꾸었다. 芸楣 閔泳翊을 따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노닐어 명성이 나라 밖에 가득했으나 끝내 천수를 누리지 못했으니 안타깝다. 그가 부안의 책바위를 읊은 시는 다음과 같다. “그 누가 책을 펼치랴? 하늘이 숨겨놓은 것이니. 이렇듯이 문장을 이뤘으니 귀신은 솜씨도 좋다.” 재치 있는 시상이 이와 같았다.⁴⁴⁾

어린 시절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거금을 詩學에 필요한 책을 사버린 일화는 그의 비범한 면을 부각시키는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이현식이란 여행시인은 한양의 보은단동에 살면서 香樹山館主人이라 칭하며 閨巷人詩社인 六橋詩社 등에 출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에 관해서 金澤榮은 『韶濩堂集』에서 「李鉉軾小傳」을 썼다. 한양의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빼어난 시재에도 불구하고 30세를 넘기고 요절한 시인이라 기록하였다. 강위의 『古歡堂收艸』에는 ‘李玄軾’으로 표기하고 그와 시를 수창한 흔적을 남기고 있고, 무정의 『茂亭存稿』에도 그와 수창한 시가 여러 편 전해온다. 조선말기 시단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한 시인임에도 그의 존재는 거의 잊혀졌다. 그런 시인에 대해 『용등시화』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현식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정은 南社 주변의 사대부 문인뿐만 아니라 여행문인과 기녀의 범주까지 시야를 확대하여 어떤 근대의 자료보다 충실하고 정확한 사실을 기록해놓았다.

44) 정만조, 위의 책, 21쪽 “余兒時，有內局小吏李秉達者來往，李時爲淳昌京邸吏。一日來見先君，有愁容。先君問之，李曰：‘小人往淳昌，得邸價錢數千，送家中救飢。昨日始還家中，依舊蕭然。問之，妻曰：爲兒所取去。即招兒問之，曰：以其錢買『佩文韻府』·『全唐詩』·『淵鑑類函』。查之果然。小人將餓死耳。’先君以爲奇，問：‘汝子年幾何？’曰：‘十五歲矣。’數年後，姜秋琴先生偶至，示所持扇面，有二詩曰：‘南麓秋澄紫翠堆，斜陽半面寫樓臺。不愁吟觸韓京兆，側絹西風緩步來。’‘十字街頭屋數椽，閉門日日抱書眠。老梧井畔蓼花雨，夢落江湖舊釣船。’尾署南臯李鉉軾。余叩其爲何人，先生曰：‘是秉達之子也。’余與先生卽往訪之，遂爲深交。後改號曰心荃，隨閨芸楣泳翊，遊海外諸國，名滿中外，竟不得年，惜哉！其詠扶安冊巖詩曰：‘有誰開卷天應秘，如此成章鬼也工。’其才思如此。”

5. 맷음말

새로 발굴한 무정 정만조의 『용등시화』가 지난 문학적 사료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한다. 1904년을 전후한 시기에 저술된 이 시화는 97칙의 수량으로 19세기 후반기 고종 시대의 한시단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거의 유일한 저작이다.

무정은 10대부터 당시 뛰어난 시인들의 모임이었던 南社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30여 년간 고종 시대 시단의 전개과정을 지켜보았다. 그 소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 시화를 저술하여 고종 시대 한시단의 생생한 모습을 기록하였다. 고종 시대의 문단을 폭넓게 보여주는 자료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그 시대를 증언하는 매우 뛰어난 저술로 평가할 만하다.

『용등시화』는 간접적 견문이나 독서를 통해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저자 본인이 직접 체험한 시단의 활동상, 시인들과 교유양상, 주고받은 작품을 기록하였다. 시단 현장의 견문과 체험이 그 현장에 있었던 무정의 기록을 통해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창의적이고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오로지 이 시화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시화는 18세기 · 19세기의 한시단이 전개된 과정과 구도를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四家와 申緯, 姜璋, 그리고 고종 시대 한시단으로 이어지는 한시사 맥락을 분명하고 참신하게 제시하여 비평사가의 뛰어난 안목을 보여주었다.

이 시화를 쓴 이후 무정은 친일행각을 본격적으로 벌임으로써 매도와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용등시화』와 그에 실린 내용은 그런 결함과는 무관하게 19세기 후반기 한시단과 지성계를 이해하는 뛰어난 저술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茂亭 鄭萬朝, 『榕燈詩話』, 『每日申報』, 『玉溜山莊詩話』, 南社, 詩話,
高宗時代

투고일(2017. 7. 19), 심사시작일(2017. 7. 27), 심사완료일(2017. 8. 8)

〈부록〉『榕燈詩話』의 기사표

則 數	題材	인용시의 작자	관련한 주요 인물과 사실	매일신보 날짜/횟수
1	童蒙詩	李恒福		09.01/1회
2	人口에 膾炙된 시	李達 李喜之		09.02/2회
3	四家 이전의 宋風	鄭太和	四家 원두표 윤강 이상진	09.02/2회
4	性情을 닮은 시	李匡德	李宗城	09.03/3회
5	시의 氣像	閔泳穆 鄭範朝		09.03/3회
6	詩識	鄭元容 姜瑋 李建昌 呂圭亨		09.04/4회
7	시의 운명	鄭健朝 李啓五 金祖淳	趙斗淳 金炳冀	09.05/5회
8	香蠹體	李友信		09.07/6회
9	古文家의 詩作	金尙鉉 尹致聃 南廷哲 沈琦澤	金晚植 北里의 노재상	09.07/6회
10	經學家의 詩作	鄭基雨 李建昌 成大永 朴齊恂		09.08/7회
11	樓亭 詩作의 어려움	都元興 金黃元 申維翰 李廷龜 朴闇 柳根		09.09/8회
12	初年詩作	申緯 李建昌	焚餘錄	09.10/9회
13	詩才	李建昇 李建昌	鄭萬朝 鄭丙朝	09.11/10회
14	悼亡詩 偽作	金正喜		09.11/10회
15	詠物詩	李豐翼	崔鳴吉	09.13/11회
16	민첩한 作詩	趙秉萬 白華洙	李豐翼 白樂裕	09.14/12회
17	何字의 用法	朴齊家	四家詩	09.15/13회
18	平仄의 誤用	李德懋 李建昌	姜瑋	09.15/13회
19	姓名을 쓴 시구	吳翰應	鄭萬朝 杜甫	09.16/14회
20	용모와 시재	李鶴遠	李重夏 李建昌	09.16/14회
21	아전 시인의 詩才	李欽軾	鄭基雨 姜瑋 李秉達 閔泳翊	09.17/15회
22	擬古詩 平仄法	趙執信 吳翰應	李白 杜甫	09.18/16회
23	申緯의 經術 문장	趙普永	金祖淳 申在植	09.21/17회
24	呂圭亨 登壇과정	呂圭亨	李建昌 鄭範朝	09.22/18회
25	李南珪의 詩才	李南珪	鄭萬朝	09.23/19회
26	四家詩選	鄭基雨 洪岐周	姜瑋 鄭健朝 李重夏 李建昌 徐郿	09.24/20회
27	작자의 시	鄭萬朝 徐周輔	李建昌	09.24/20회
28	鄭贊朝의 명시	鄭贊朝		09.27/21회
29	교묘한 대우	鄭憲時	馬建常 鄭萬朝 李建昌	09.27/21회
30	李建昌의 新語	李建昌	金玉均 鄭萬朝	09.27/21회
31	금강산 명시	李匡德	李滉 金昌協	09.28/22회
32	무명씨의 기작	무명씨	林悌	09.28/22회

33	붓장수의 시	붓장수	鄭萬朝	09.28/22회
34	江鏡 客主의 시	方達周 方圭錫	鄭基雨 鄭萬朝	09.29/23회
35	盈德아전의 詩	朱孝祥	鄭基雨 鄭萬朝	09.30/24회
36	자식 일찍 둔 시	鄭萬朝 李書九	牟亨煥	09.30/24회
37	비위를 건드린 시	李建昌	李根洙 呂圭亨 李重夏	10.02/25회
38	곤경을 겪은 黃玹	黃玹	朴基昌 鄭萬朝	10.04/26회
39	비방을 부른 작품	李尙迪 姜璉	海棠樓 러일전쟁	10.05/27회
40	빈궁 애걸시	安榮植 趙文夏 金行健 丁大栻	興宣大院君	10.06/28회
41	시인의 궁핍	李應辰	閔泳穆	10.07/29회
42	시인의 阿諛	李晚用 鄭基雨	金炳冀 趙秉式	10.07/29회
43	민첩한 作詩	鄭萬朝 呂圭亨 趙宅熙	吳雅懷	10.08/30회
44	불우한 시인	尹榮軾		10.09/31회
45	시인의 성정	宋榮大	李重夏 朴義老	10.09/31회
46	經書의 시어	申緯		10.11/33회
47	成語의 시어	鄭萬朝 王士禎	杜甫	10.11/33회
48	부귀가의 悲苦語	鄭基世	洪裕孫 鄭萬和 元稹 白居易 鄭元容	10.12/34회
49	祝壽詩	姜璉		10.13/34회
50	喪中 作詩	李敎夏	鄭萬朝	10.13/34회
51	對仗의 정밀함	金澤榮	宋人詩	10.14/35회
52	干支對	李經齋	袁枚 徐相助 朴彝陽	10.14/35회
53	疊字 금기	杜牧 劉禹錫 蘇軾 王維		10.15/36회
54	楹聯의 적합성	鄭允容 李象學		10.16/37회
55	李亮淵의 시	李亮淵	陶淵明 邵康節	10.19/38회
56	南周元 玉溪體	南周元의 李商隱 시풍	李商隱	10.19/38회
57	黃玹의 시풍	黃玹	呂圭亨 李建昌	10.21/39회
58	북한산시의 警聯	李重夏 李建昌	鄭基世	10.21/39회
59	李重夏의 엄정한 안목	李建昌 金澤榮 黃玹	李重夏 呂圭亨	10.22/40회
60	河東 출신 시인	成蕙永 金昌舜	姜璉 李重夏 鄭健朝	10.22/40회
61	姜璉의 일화	李建昌 姜璉	宋荔裳	10.23/42회
62	尹成鎮과 趙昌永의 詩才	尹成鎮 趙昌永	鄭基世 鄭萬朝	10.25/42회
63	徐相雨의 시풍	徐相雨	鄭萬朝 天然亭	10.26/43회
64	李相璜 시	李相璜	李敎宇	10.26/43회
65	작자 시의 新語	鄭萬朝 李匡呂	朴齊純 慕華館	10.26/43회 10.30/44회
66	체험과 시감상	申緯 朴齊家		10.30/44회
67	李根洙의 불우함	李根洙	趙成夏 姜璉 鄭基世 李重夏 趙秉老 李建昌	11.01/45회
68	姜慶文의 처량함	姜慶文	姜璉	11.02/46회

69	趙徵林의 俳體	趙徵林	趙得林 趙徵林 南行	11.02/46회
70	李喬榮의 畫作	李喬榮	남사당체 大院君	11.03/47회
71	李象學의 희작	李象學	石城縣令	11.05/47회
72	紫霞小樂府 변증	申緯	鄭萬朝 李建昌	11.05/47회 11.08/48회
73	작자의 夢詩	鄭萬朝	李建昌	11.08/48회
74	盈德 獄舍의 시	朴炳文	鄭基世	11.08/48회
75	趙冕鎬의 매화벽	趙冕鎬	홍선대원군	11.09/50회
76	평양 전별시	宋彥會	徐丙壽	11.09/50회
77	김택영의 평양시	金澤榮	宋榮大	11.09/50회
78	童蒙詩名作	朴長遠 李建昌 吳翰應		11.11/51회
79	箋註가 필요한 시	鄭基春	袁枚 洪岐周	11.11/51회
80	淳昌의 향토시인	薛奎錫	鄭範朝	11.12/52회
81	귀신의 시	尹治	李彥璽 李黃中 金澤榮	11.12/52회
82	湖西의 불우시인	沈相	沈弘澤	11.12/52회
83	尹滋惠의 문장	尹滋惠 李建昌	鄭萬朝 姜璋	11.18/52회
84	鄭顯五 일화와 시	鄭顯五	鄭憲時 李重夏	11.13/53회
85	金商雨 父子의 시	金商雨 洪岐周 金性濟 李應辰	鄭萬朝 江景	11.13/53회
86	사위가 된 날의 시	鄭萬朝 鄭日愚	朴齊恂 李晚用	11.22/53회
87	李象秀 父子의 시	姜璋 李象秀 李建初	吳翰應 尹秉綏	11.22/53회
88	姜璋 시의 風神	姜璋 鄭基世	鄭健朝 鄭憲時 李重夏 李根洙	11.15/54회
89	지체가 낮은 시인	趙熙平 李寅天 南相說	李萬元 李穆淵	11.23/54회
90	시풍의 양대조류	洪春卿 鄭土龍 崔峴	四家 申緯 姜璋 李建昌	11.25/55회
91	金弘集 申佐模 鄭顯德의 시	金弘集 申佐模 鄭顯奭	金升集 銀河月	11.19/56회
92	兪吉濬의 천재성	兪吉濬	金弘集	11.26/60회
93	내가 만난 詩僧	應月 箕坡	鄭萬朝	11.26/60회
94	普淵의 名詩	普淵		11.29/61회
95	사대부 女流詩人	許蘭雪軒	思任堂 令壽閣 貞一堂 成大永 모친	12.02/62회
96	娼妓의 시	錦鶯 九香	황진이 錦城紅	12.02/62회
97	和順의 童妓	香心	鄭萬朝	12.02/62회

* 위는 『용등시화』 전체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신문에는 두세 개의 則을 한 번에 실은 경우도 있고, 긴 내용은 두 번에 나누어 실은 경우도 있다. 필자가 내용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번호를 매겨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Abstract〉

A Study of Yongdeung-sihwa by Mujeong JEONG Man-jo

AHN Dae-ho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newly discovered *Yongdeung-sihwa* (榕燈詩話, Critical Essays on Poetry Written in Exile Under an Oil Lamp) and evaluate its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poetry criticism in Korea. *Yongdeung-sihwa* i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on poetry authored by Mujeong JEONG Man-jo (1858-1936), who was a renowned literati active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1910 - 1945). The book was published while the author was still alive, while the entire collection was published once again posthumously in 1938 in a series of 62 articles in the newspaper *Maeil sinbo*. However, Mujeong's work has been all but forgotten in Korea in the period since the end of the Japanese occupation. This paper traces why and how this situation came about.

Mujeong descended from an elite family of the Soron faction. Beginning in his teenage years, he lived in Hoehyeon-dong, Hanyang, or today's Seoul, and associated actively with the most celebrated poets of his time through Namsa Dongin, a circle of literati. In 1896, after being implicated in the October 1895 death of Empress Myeongseong—an event known as the Eulmi Incident—he was sent to Jindo, an island off the southern coast of the Joseon peninsula, for a ten-year exile. The essays in *Yongdeung-sihwa* were written around 1904 while he was still in exile on Jindo. There are a total of 97 pieces (chik) in the collection, which is substantial in length. Mujeong first analyzes the trends in poetry in Joseon spanning the hundred years from the mid-18th century to the mid-19th century. He then concentrates on analyzing the contemporary poets of the Gojong period. Thus, *Yongdeung-sihwa* is full of lively accounts of the poetry world, which the writer is intimately familiar with. In fact, the entire collection contains information that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Considering

* Professor,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ungkyunkwan University.

that there is a dearth of works written on poetry of the Gojong period, Mujeong's collected essays on poetry are extremely valuable for the study of literature and history of the period. As the most valuable work on poetry criticism discovered in recent times, Yongdeung-sihwa deserves the attention of researchers.

Key Words : Mujeong JEONG Man-jo, Yongdeung-sihwa, Maeil sinbo, Oknyusanjang-sihwa, Namsa, sihwa, Gojong era